

# 古代 韓日 裝身具 比較 研究

水原大學校 生活科學大 衣類織物學科

副教授 金 文 子

## 目 次

I. 序 言	4. 반지
II. 韓日 裝身具 比較	III. 結 論
1. 귀걸이	參考文獻
2. 목걸이	ABSTRACT
3. 팔찌	

## I. 序 言

본 논문은 고대 특히 우리 나라 三國時代(日本에서는 古墳時代)에 있어서의 우리의 裝身具가 일본 裝身具에 미친 영향을 고찰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일찍이 그 상호 관련성이 밀접하였는데 일본의 繩文시대)에는 玉石工藝, 彌生시대(기원전3, 4세기~3세기)에는 농경문화가 일본에 건너갔다고 한다.<sup>1)</sup> 일본의 古墳時代(3세기말~7세기말)는 거의 모든 생활 양식이 한일간에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복식이라 할 수 있다. 판모에서 의복, 요대, 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복식품들이 공통된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本考에서는 그 중에서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류에 국한된 裝身具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裝身具들이 있었으리라 믿어지나 그 유희를 접하게

되는 것은 繩文시대라고 불리는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이시대에는 石, 土, 骨, 角, 齒牙, 貝殼, 木 등으로 제작된 각종의 裝身具가 있었다. 다음 金石併用시대인 彌生시대에는 裝身具의 기본적인 것은 前代의 것 그대로 踏襲되었다. 그러나 그 재료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銅, 金銅, 琉璃 등 새로운 것들이 쓰여졌다.<sup>2)</sup> 彌生시대에 이어지는 古墳시대에 이르러 고대 한국으로부터 고도의 공예기술이 전파되어 일본의 裝身具는 급격히 화려하게 발달하였으며 그 내용도 多種多様하였다. 일본의 埴輪人物像(圖 1)에는 이같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의 裝身具로 치장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각 지역 고분에서 발굴된 여러 被葬者의 裝身具 착용상태를 나타내는 배치 모습이나 출토된 유품으로 미루어보아 한일 두나라의 裝身具 착용양식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古墳시대 일본의 裝身具가 우리의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직접 우리나라로 부터 傳來된

1) <古代史發掘>2, 繩文土器と貝塚 東京: 講談社, 1973, pp.33~34.

関斗基(編著), <日本の歴史>, 서울: 知識産業社, 1977, p.11.

2) 金基雄, "裝身具", <日本文化の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東北亞細亞研究會(編), 서울: 三省出版社, 1981, pp.348~49.

것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일본 지배층의 대륙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圖 1) 埴輪女人像  
日本 千葉縣經僧塚古墳出土  
—〈古代史發掘〉7

본 논문의 연구동기는 선행연구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장신구들의 실제 형태를 하나 하나 비교분석 하는 등의 상세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연구해 보고자 한다.

고찰 방법으로는 일본의 裝身具를 먼저 서술하고 그 원류가 되는 우리의 裝身具들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자료는 우리가 복식문화의 선진 지역이므로 우리의 裝身具들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매우 많으므로 우리의 古墳出土品 중 대표적인 것들과 일본의 埴輪人物像, 古墳出土品 등을 선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각 유물의 출토 연대를 하나씩 비교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좀더 상세한

연대 비교등은 더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韓日 古墳 編年이 정립된 연후에 보충 연구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韓日 古代 服飾 관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선에서 유물을 중심으로 각 裝身具의 樣式 比較만을 했음을 밝혀둔다.

## II. 韓日 裝身具 比較

### 1. 귀걸이

일본에 있어서의 귀걸이는 古墳시대 후반에 널리 사용되었던 裝身具의 하나로 前述한 埴輪人物像(圖 1)에서 그 착용모습을 볼 수 있다. 古墳時代의 金製耳飾의 기술은 한반도로부터 배워왔으며 거기에 垂飾의 樣式은 5세기대에 들어와 6세기대에 이르러 日本에서도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sup>3)</sup>

일본의 귀걸이의 양식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單環式 耳飾과 垂飾付耳飾, 耳玉의 세종류로 나눌 수 있다.

#### 1) 單環式 耳飾

일본 고분 출토품에 보이는 단환식 이식은 外形이 圓또는 圓形이고 한쪽이 절단되어 있는데, 내부가 充實한 金屬棒으로 된 것과 속이 빈 것도 있다.(圖 2) 재료는 銅으로 된 것이 많고 대부분 표면에 金, 銀鍍金을 했는데 드물게는 純金, 純銀製의 것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수식부이식이 특수한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이 단환식이식은 광범위한 계층에서 愛好를 받았다고 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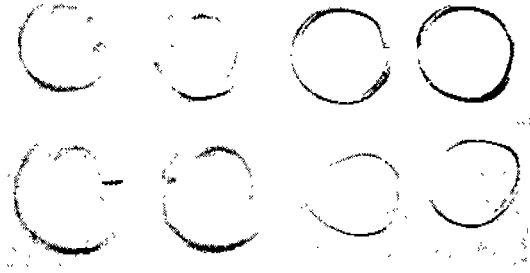
이같은 단환식이식의 우리나라 고분의 출토에는 後述할 수식부이식보다는 적지만 고구려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高句麗지역에서는 만달면 지구 출토품(圖 3)이 있고, 평양역전 二室墳 出土 金銅製耳飾은 타원형의 가는 고리로 고리의 長徑이 1.5cm, 短徑이 0.

3) 杉本正年, 〈東洋服飾史論考〉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p.325.

4) 樋口清之, 永峯光一, “裝身具”, 〈新版考古學講座〉5, 原史文化下, 東京: 雄山閣, 1974, p.262.

9cm이며 두께는 0.4cm이다.<sup>5)</sup> 심귀리 제 75호분 출토 이식은 직경이 1.2cm이다.<sup>6)</sup>



(圖 2) 單環式耳飾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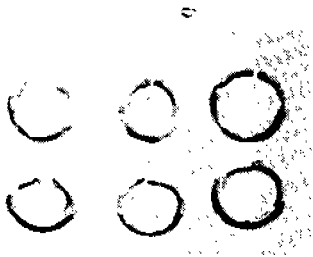
右上 2個；三重縣友生村高猿出土

右下 2個；福岡縣植木出土

左上 2個；群馬縣倉賀野町出土

左下 2個；石川南志雄村出土

—〈世界考古學大系〉3 日本



(圖 3) 單環式耳飾

高句麗 晚達面地區出土

—〈朝鮮古文化總鑑〉4

百濟지역 출토에는 먼저 公州熊津洞 제 17호분 출토 金銅製耳飾 5개, 同地域 제 8호분 출토 金동제 耳飾 3개를 비롯하여 宋山里 第8號墳 出土 金製 耳飾 1개, 牛禁里 第1號墳出土 金동제耳飾 2개, 丹尾里 제 5호분 발견 金동제 耳飾 1개, 玉龍洞 古墳 發見 金동제 耳飾 1쌍, 新村里제 6호분 발견 金동제 耳飾 1개, 潭陽 齊月里 百濟古墳 출토 金동제 耳飾 1쌍 등이 알려 지고 있다.

古新羅지역에서는 味鄒王陵地區 제 9區域 A호

破壞古墳 출토 耳飾, 同地區 제 5區域 제 16호분 출토품을 비롯하여 황남리 제 109호분 제 3곽 출토품은 단면이 원형이고 中實의 素環으로 金제의 完형인데 지름은 3.8cm이고 고리의 두께는 0.28cm이다. 황남리破壞古분 제 2곽 출토품은 평면이 偏橢圓形인 中空의 細環이고 단면원형인 環體의 外徑은 2.2cm이다. 황남리 파괴古분 제 6곽에서도 外徑이 2.6cm의 金製 耳飾이 출토되었고, 仁旺洞 제 19호분 A槨, 同 제19호분 K槨 등에서도 單環式耳飾이 출토되었다.

加耶지역에서는 高靈 池山洞古墳群 連結石槨 출토 耳飾이 있는데 굵기가 1.30mm, 지름이 1.63cm의 金製 한쌍으로 순도 높은 양질의 金線으로 圓環을 만들었는데 양끝은 조금 벌어져 있다. 지산동 제 44호 고분 제 29석곽에서 被葬者의 頭蓋骨 양측에서 銀製 耳飾 한쌍이 출토 되었는데 굵기는 1.5mm 이고 고리의 지름은 2.8cm, 2.6cm 인데 양끝은 사이가 좀 벌어져 있다. 지산동 제 45호분 제 10호 석곽에서 출토된 순금제 耳飾 한쌍은 지름이 1.8cm이고 굵기가 2.6~2.8mm의 金線을 둥근 고리로 만들었는데 양단은 붙지않았다. 安東 造塔洞 고분 西槨의 棺臺 동쪽 南端에서 발견된 金製 耳飾 한쌍은 지름은 1.9cm~2.1cm 이다. 또 제 2棺臺 東側 南端에서 출토된 金銅製 耳飾 한쌍은 지름이 2.9~3cm이다. 昌寧 桂城洞 A地區 제 2호분 석실에서도 金동제 耳飾 한쌍이 출토되었는데 金동환에 얇은 金板을 입힌 金동제 橢圓形素環으로 굵기는 0.4cm이고 外徑은 2.4~2.1cm이다. 이밖에 가야의 여러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또한 金, 은, 동제의 고리 한 개만이 출토된 예도 많다.<sup>7)</sup>

## 2) 垂飾付耳飾

垂飾付耳飾은 단환식 이식에 비하여 細金細工을 마음대로 구사하는 정교한 기법을 쓰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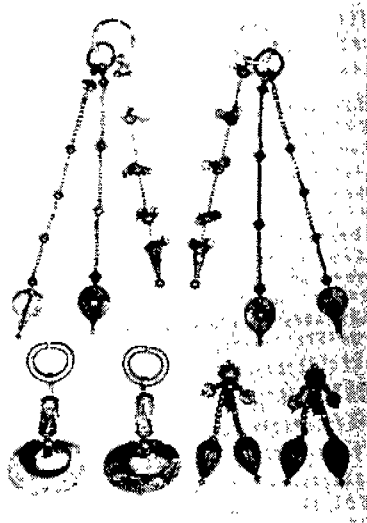
5) 〈대동강류역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제1집, 과학원출판사, 1958, p.21.

6) 〈압록강, 독로강류역고구려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13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pp.28~29.

7)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p.42, 78, 150, 151.

것으로 고분시대 공예의 하나의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금계가 대부분이며 은, 동계 것도 있다.

일본에서 垂飾付耳飾의 양식을 구분 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우선 垂飾의 형태에 따라 두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1개의 細形主環에 2, 3개의 사슬을 드리우고 하단에는 여러 형태의 垂飾을 달아 맨 형태의 多條式耳飾과 다른 하나는 1개의 細形主環에 中間飾과 心葉形 등의 垂下飾을 달아 맨 형태의 單條式耳飾으로 구분 된다.



(圖 4) 垂飾付耳飾

日本

上 2個(圖 4-1) 多條式耳飾: 熊本縣般山古墳出土  
 下左 2個(圖 4-2) 心葉形耳飾: 上同  
 下右 2個(圖 4-3) 梔子實形耳飾: 三重縣保子里古墳出土  
 -〈世界考古學大系〉3 日本

첫째, 多條式 耳飾의 대표적인 예로는 熊本縣 般山古墳 出土品(圖 4-1)을 들 수 있는데 全長 15cm 정도이고 금은제이며 細環을 중심으로 하여 세 개의 긴 줄과 垂飾品을 늘어뜨리고 있다. 방울과 瓔珞등을 달고 있는 3條의 사슬에다가 圓錐形의 先端에 유리옥을 끼운 垂飾 1개와 2개의 細長

한 心葉形을 각각 垂下飾으로 달아매고 있다. 奈良縣 新澤千塚 第126號墳 出土품은 全長 20.5cm로서 3條의 사슬이 드리워져 있는데 2條의 하단에는 中空小豆의 垂飾을 달고 1條의 하단에는 포오 크형의 垂飾을 달았다.<sup>8)</sup>

이와같은 多條式 耳飾은 古新羅 지역 出土품(圖 5)을 들 수 있다. 圖 5는 全長10cm로 細環式 耳環에 3줄기의 장식이 垂下되어 있다. 하나는 倒置된 卍字符號의 垂飾을 매달고 나머지 둘은 中空球體와 금사슬을 교대로 연결한 끝에 細長한 心葉形 垂飾을 매달은 모습<sup>9)</sup> 등은 (圖 4-1)의 양식과 거의 흡사하다 하겠다.



(圖 5) 多條式耳飾

古新羅 出土地未詳  
 -〈韓國美術全集〉2

이밖에 같은 多條式이나 그 형태가 좀 다른 양식이 일본 고분 에서도 출토되고 있는데 圖 5, 圖 4-1보다 사슬이 짧은 것으로 三重縣 保子里古墳 出土품(圖 4-3)은 母環에 瓔珞을 단 방울을 연결하고 방울에는 金の 針金을 한 二條의 絲鎖形을 매달아 그 끝에 刺자실形垂飾을 달고 있다. 滋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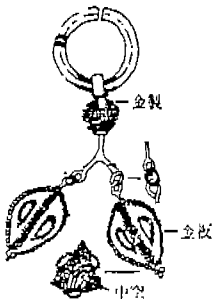
8) 樋口清之. 永峯光一. op. cit. p.262.

9) 韓炳三(編).〈韓國美術全集〉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社,1975. p.139.

縣 稻荷山古墳, 佐賀縣 玉島고분출토품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치자실形 수식을 매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양식은 우리나라에서도 백제, 고신라, 가야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백제 武寧王陵 왕비 귀걸이와 고신라지역 출토 귀걸이(圖 6)는 母環에 방울을 단 모습이나 絲鎖形을 연결한 모습에서 (圖 4-3)과 동일한 양식을 하고 있으며 또한 昌寧 校洞고분 출토품(圖 7)은 비롯한 고신라 가야동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치자실形 귀걸이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圖 6) 草實形耳飾  
古新羅 出土地未詳  
-〈韓國美術全集〉2



(圖 7) 梔子實形耳飾  
昌寧校洞古墳群出土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둘째, 單條式 耳飾은 일본 岡山市 北浦 八幡大塚고분 출토품(圖 4-2)과 熊本縣 船山고분 출토품(圖 8), 奈良縣 星塚고분 출토품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主環에 子環 또는 中間飾이 달리고 그 끝에 復葉式의 心葉形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圖 8) 心葉形耳飾  
日本 姜山市北浦八幡大塚出土  
-〈古代史發掘〉6



(圖 9) 心葉形耳飾  
高句麗 봉화리1호분출토  
-〈北韓文化遺蹟發掘概報〉

이같은 單條式의 耳飾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분에서 多種 多樣한 樣式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일본 耳飾의 始原形으로 보이는 출토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高句麗지역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봉화리 제 1호분 출토 귀걸이 1쌍(圖 9)이 있는데 귀에 매어다는 부분은 놋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순금이 다. 고리의 外徑은 20mm이고 內徑은 18mm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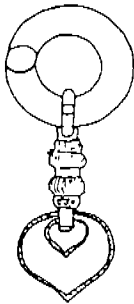
중간의 순금고리 밑에는 가는 황금줄로 만든 고리를 서로 잇대어 球形을 이루게하여 마치 꽃바구니를 연상시키는 등근모양이 달려있으며, 그 밑에는 얇은 황금판으로 만든 心葉形의 수식이 달려 있다.

百濟지역에서는 公州 宋山里 고분출토 금제 耳飾, 公州 舟尾里 제 3호분 출토 금제 耳飾(圖 10) 등에서 心葉形의 수식이 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圖 10) 心葉形耳飾  
百濟 公州舟尾里제3 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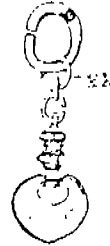
古新羅지역에서는 경주 味鄒王陵地區 제 3擲 출토 耳飾(圖 11), 천마총출토 耳飾등에서 前者와 거의 동일한 復葉式 樣式을 발견할 수 있다.



(圖 11) 心葉形耳飾  
古新羅 慶州味鄒王陵地區第3擲出土  
圖10, 11 -〈古墳出土副葬品研究〉

加耶지역에서는 昌寧校洞6 號墳, 7 號墳出土品

(圖 12)에서 이같은 復葉式의 心葉形耳飾이 보이고 있으며<sup>10)</sup> 그외에 大邱 飛山洞 제37호분 제 2석곽, 제 34호분 제1석곽 출토품, 星州 星山洞古墳出土品등에서도 볼 수 있다.



(圖 12) 心葉形耳飾  
加耶 昌寧校洞7 墳出土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이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단조식 이식의 대표적인 양식은 心葉形의 수식을 단 이식을 들 수 있는데 공통점은 心葉形중에서도 특히 復葉形을 하고 있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垂飾付耳飾은 일본고대에 있어서 5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初頭까지 성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세기 전반경에 가야 고분에서 이미 출토되었고 그 양식도 다양하다. 이런점으로 미루어보아 일본 고대의 垂飾付耳飾은 우선 가야에서 전파되었고 뒤이어 신라에서도 전파되었다고 한다.<sup>11)</sup>

### 3) 耳 玉

耳玉은 小玉을 끈에 꿰어 耳邊에 걸고 있는 것으로 일본 群馬縣 朝倉출토 埴輪 人物像(圖 13)이 착용했다. 이러한 小玉을 끈에 꿰 형태는 목걸이 팔찌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耳玉은 아직 볼 수 없으나 여러 고분에서 玉類連結 목걸이등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걸이로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 된다.

10) 穴澤和光, 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東京: 日本考古學會, 1975, pp.31~32, 35~36.

11) 金基雄, op. cit. p.357.



(圖 13) 耳玉着用 埴輪  
日本 群馬縣朝倉出土  
—〈考古學講座〉4

## 2. 목걸이

목걸이는 귀걸이보다 역사가 오래이며 원래 呪術的인 의미가 큰 裝身具였는데 점차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石器時代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목걸이는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獸牙飾목걸이와 각종 飾玉연결목걸이등이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분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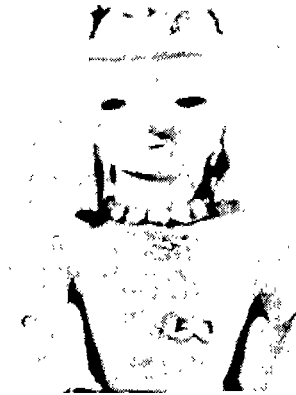
이들 목걸이는 대개가 飾玉을 끈에 꿰어 연결하고 있는데 끈이 腐植되어 그 구성 형태를 잘 알 수 없는 것도 있으나 보통 曲玉, 丸玉, 管玉, 槩玉, 多稜玉 등의 각종 옥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목걸이 착용모습은 많은 埴輪 人物像(圖 1, 14, 16)에서 잘 나타나 있다. 목걸이의 형태를 살펴보면 보통 한종류의 玉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고, 여러종류의 玉이 혼합된 경우, 두줄로 구성된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목걸이를 한 번에 목에

걸고 있는 경우등 매우 다양한 목걸이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埴輪 人物像(圖 14)에는 曲玉이 없이 한종류의 玉만으로 연결된 간단한 목걸이류도 있는데 이와같은 양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나 많지 않다.

玉을 사용하는 목걸이류는 고구려지역에도 있는데 安鶴宮地 제 10호 무덤에서 출토된 목걸이구슬이 4개 중 3개는 긴구슬이고 1개는 둥근 구슬이다. 긴 구슬은 길이가 3cm되는 관으로 양쪽끝은 가늘고 중간은 굵어 그 직경이 7mm이고 두께는 3mm이다. 둥근 구슬은 직경 6mm되는 구형이며 구멍이 중심에 뚫렸고 구리실을 그 안에 끼워 놓았다고 보고되어 있다.<sup>12)</sup>



(圖 14) 목걸이着用 埴輪  
日本 群馬縣大泉町出土  
—〈陶磁大系〉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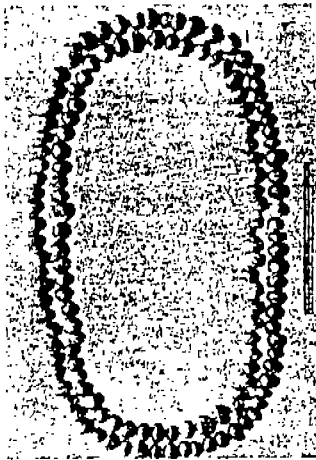
백제 지역에도 각종 玉類를 유기질 끈으로 연결시켰으나 그 유기질의 연결구가 부식되어 각종 옥류의 정확한 연결순서를 알기는 어려우나 목걸이로 사용되었던 고분 출토품들이 있다. 羅州郡 潘南面 新村里 제9호분 출토품을 비롯하여 武寧王陵 출토 金製中空球體 265개와 金製蜜柑形球體 72개의 각종 玉類가 수천점이 출토되었고 송산리 제 8

12)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제9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p.51.

호분에서도 각종 각양의 옥류가 천여점 발견되었다. 이의 여러고분에서 金, 銀, 金銅製와 翡翠, 水晶, 瑪瑙, 琥珀, 琉璃의 재료로 만들어진 曲玉, 管玉, 棗玉의 各樣 各態의 옥류연결목걸이류가 알려져 있다.

古新羅 皇南里 第83號墳 出土品은 琉璃玉 185개 인데 徑이 0.6cm의 小丸玉과 小平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줄로 되어 있다.<sup>13)</sup>

加耶 大邱 飛山洞 第37號墳 第1石槨 出土品(圖 15)은 藍色 琉璃 少玉을 이증으로 감은 것인데 遺物배치도에 따르면 被葬者의 兩耳飾間에서 가슴에 이르는 부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주인공에게 着裝시켜 安葬한 듯하다.<sup>14)</sup>



(圖 15) 목걸이  
加耶 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槨出土  
-〈古墳出土副葬品研究〉

한편 일본의 목걸이 중에서도 奈良縣 石見출토 埴輪 人物像(圖 16)을 비롯한 많은 埴輪 人物像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小玉이나 丸玉, 또는 管玉을 배열하고 전면 중앙에 曲玉을 垂下시키는 양식은 당시 가장 일반적인 목걸이의 형태로서 고분 출토품인 일본 大阪府 黃金塚 출토 목걸이(圖 17)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圖 16) 목걸이 着用 埴輪  
日本 奈良縣石見出土  
-〈陶磁大系〉3



(圖 17) 曲玉垂飾목걸이  
日本 大阪府黃金塚出土  
-〈古代史發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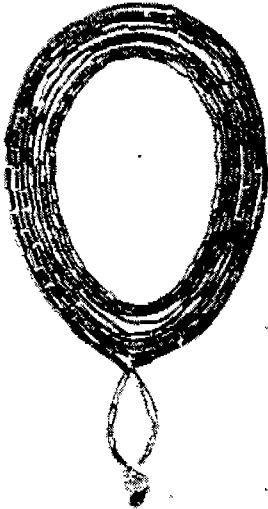
이와같이 연결시킨 飾玉類 중앙에 曲玉을 垂下시키는 曲玉垂下飾 목걸이양식의 始原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靑銅器時代 것으로 보이는 傳 慶北安東郡 출토 碧玉 목걸이(圖 18)이다. 600여개의 관옥을 꿰어 사리고, 거기에 다시 보다 작은 관옥줄을 연결시켜서 半圓形으로 다듬은

13) 〈昭和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조선총독부, 1931, p.63.

14) 〈大正十二年朝鮮古蹟調査報告〉 조선총독부, 1923, pp.7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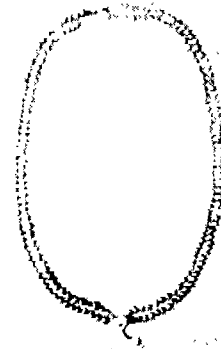
푸른색 天河石製 半圓形玉은 三國時代 曲玉의 原始形으로 생각된다.<sup>15)</sup> 그후에 계속해서 이같은 曲玉製 垂下式의 목걸이양식은 고신라, 가야의 여러 고분에서 보다 다듬어진 형태로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圖 18) 曲玉垂飾목걸이  
傳 慶北安東郡出土  
—〈韓國의 裝身具〉

고신라 皇南里 第82號墳東塚主槨 出土品은 1개의 투명한 水晶製曲玉을 中心으로 85개의 琉璃玉이 좌우로 連結된 것이며, 皇南里 第1號墳南槨 出土品은 지름 1.5cm 내외의 紺色琉璃玉 93개와 중앙부의 綠斑白色曲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皇南里 第5號墳出土品은 靑色琉璃玉 351개와 길이 4.3cm의 大形翡翠製 曲玉 1개를 연결한 것이다. 銀鈴塚 出土品(圖 19)으로는 연한 綠色 曲玉 1개에 琉璃丸玉 240개를 二連으로 연결한 것이고, 飾履塚 出土品도 瑪瑙製曲玉 1개에 琉璃玉 193개를 二連으로 연결한 것이다. 皇南里 第54號墳甲塚 出土品은 중앙에 大形曲玉을 달은 琉璃玉 약 334개를

三條로 연결한 것이고, 同乙塚에서도 被葬者의 頸部에서 세줄로 발견되었는데 중앙에 硬玉製曲玉 1개를 달고 있다. 皇南里 第14號墳 第2槨主槨에서도 硬玉製曲玉 3개와 琉璃丸玉 396개가 三條로 연결된 頸飾이 출토되었다.<sup>16)</sup> 金鈴塚出土品 중 其一은 모두 투명한 수정옥으로 이루어졌는데 曲玉 1개, 六角形水晶多面玉 大小3~8개를 연결한 것이고, 其二是 曲玉 1개를 중심으로 水晶丸玉 74개, 珠산알형 玉 大小 20개를 연결한 것이다. 其三是 피장자의 頸胸部에 걸쳤던 것으로 추측되는 것으로 冠의 北側에서 나온 一條는 丸形과 白形의 玻璃玉 80여개에 硬玉製 曲玉 1개를 연결한 것으로 曲玉은 徑 4.5cm의 丁字頭에 깊은 三條의 刻線이 있고 구멍은 頸部를 향해 左側으로 뚫려 있다. 其四是 경옥제 曲玉 1개, 金製飾附槨 6개, 金製飾玉 88개, 琉璃玉 152개를 연결한 것이고, 其五是 경옥제 곡옥 3개, 금제 식옥 20개, 유리옥 110여개가 연결되었다. 其六은 유리환옥 152개로 경옥제곡옥 1개를 중심으로 四連으로 연결되고 心葉形纓珞을 달은 金製桿을 달고 飾附銀製空玉 48개와 3片的 小纓珞을 附裝한 金製空玉 88개를 배치하고 있다. 瑞鳳塚 出土品도 曲玉 한개를 중심으로 琉璃丸玉 金製空玉 銀製空玉 金製桿이 연결되어 있다.<sup>17)</sup>



(圖 19) 曲玉垂飾목걸이  
慶州 銀鈴塚出土  
—〈壹杆塚과 銀鈴塚〉

5)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編), 〈韓國의 裝身具〉, 韓國博物館協會, 1991, p.21.

6) 尹世英, op. cit. pp.89~92.

7) 〈大正十三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pp.79~81.

皇吾里 第14號墳 第1槨 主槨 出土品은 靑色琉璃玉을 3條로 연결한 頸飾인데 대체로 內側의 것은 150개, 外側의 것은 180개, 中部의 것은 156개, 총 486개인데 丸玉이 대부분이고 平玉도 있다. 중앙부에는 길이가 2.9cm 두께 0.85cm의 硬玉製曲玉이 달려 있다. 皇吾里 第4號墳 出土品은 연한 청색 유리옥 333개를 이었는데 지름이 약 0.8cm정도이고 중앙에는 瑪瑙製管玉(徑 0.8cm, 장 2.1cm) 2개와 同大의 碧玉製管玉 2개, 瑪瑙製曲玉(徑 3.7cm)과 두부에 刻線이 있는 丁字頭의 硬玉製曲玉(長 4.7cm)각 1개가 달려 있다.<sup>18)</sup> 호우총 출토품은 진한 監色琉璃玉 172개의 중심부에는 硬玉製曲玉 1개를 연결하고 頸部 중앙에는 水晶多面玉 2개를 달은 것이다.<sup>19)</sup>

한편 味鄰王陵前地域 C지구 第4號古墳出土品(圖 10)은 赤瑪瑙의 曲玉을 중앙 하단부에 달고 그 위에 투명한 水晶의 粟玉을, 그 위에 象嵌琉璃丸玉을, 그 위에 淡紅瑪瑙의 多面玉을 차례로 연결하여 중앙 垂下飾으로 하고 다음은 좌우 양측으로 石製管玉을 끼우고 담홍색 마노제의 다면옥과 환옥을 3회 반복하고 다시 마노환옥을 3개, 유리환옥 15개를 연결시켰는데 飾玉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도록 형성하였다고는 하나 출토 당시 墓床의 자갈속에서 수습되었으므로 그 원형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 頸飾에서 특기할 것은 象嵌琉璃丸玉이다. 지름 1.6cm의 이 丸玉에는 水中에 綠色水草가 떠있고 그 사이로 오리 6마리가 遊泳하고 있고 두사람의 인물상이 象嵌되어 있는 등 표면에 白·黃·綠·靑·赤色の 색채를 조화시키고 있다.<sup>20)</sup>

天馬塚 出土品으로는 제일위에 짙은 靑色の 琉

璃玉 7~10개가 이어지고 그 밑에 銀製中空玉 金製中空玉, 다시 銀製中空玉이 각 3개씩 차례로 이어지고 그 끝에 方柱形金具가 1개 있는데 이와 같은 순서로 연결되는 1區가 양측에서 5區 반복되어 제일 밑에는 다시 청색 유리옥을 늘인 다음 하단 중심부와 양측 중간위치에 작은 곡옥 1개를 매어 단 大形의 경식이다.<sup>21)</sup>

加耶 出土品으로는 먼저 梁山 夫婦塚에서 翡翠曲玉 1개에 琉璃玉 112개를 연결한 頸飾을 들 수 있는데 주인의 兩肩部에서 胸部에 걸쳐 있었으며 翡翠曲玉은 길이가 6.7cm의 大形이다.<sup>22)</sup> 大邱 內唐洞 第55號墳에서는 琉璃玉 2連이 출토되었는데 監色琉璃小玉이 大小 2종이고 약간 큰 것은 三重으로 되었고 작은 것은 二重으로 되었는데 모두 그 하단에 曲玉1개를 달았다.<sup>23)</sup>

이 頸飾은 被葬者의 頸部와 胸部位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주인공에게 着裝하여 안치한 듯하다.<sup>24)</sup> 東萊 福泉洞 第1號墳 出土品은 曲玉3개와 監色琉璃玉 484개, 黑色琉璃玉 100개, 草綠色琉璃玉 753개가 收束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구슬의 수로 보아 몇개분의 頸飾인지 또는 몇번을 감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sup>25)</sup> 池山洞 第45號古墳 第1號石室에서는 좌우 耳飾사이에서 가슴에 이르는 곳에 끝에 曲玉 1개를 달은 監靑色 球形 琉璃구슬을 연관시킨 頸飾이 출토되었다.<sup>26)</sup>

高靈 池山洞 第33號墳石室 출토 頸飾은 청색 유리구슬이 110개가 출토되었으며 크기는 길이 4mm, 두께 2mm에서 길이 7mm, 두께 4.5mm까지이고 형태도 扁球形 車輪形 管玉形 팔알形 등이 다. 曲玉도 4개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비취옥이고

18) 國立中央博物館, 〈皇吾里第4. 5號墳發掘調查報告〉, 1964, p.12.

19) 金載元, 〈壙杆塚과 銀鈴塚〉, 서울 : 을유문화사, 1946, p.29.

20) 嶺南大學校博物館, 〈皇南洞古墳發掘調查概報〉, 1975, pp.90~92.

21)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1974, pp.98~99. 圖版 9.

22) 〈梁山夫婦塚及其遺物〉, 1927, pp.47~50.

23) 〈大正十二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pp.72~73.

24) 尹世英, op. cit. p.145.

25) 東亞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第1號墳發掘調查報告〉, 동아대출판부, p.20, 28.

26) 金鍾徹, 〈高靈池山洞第4. 5號古墳發掘調查報告〉, 1979, p.217. 圖版 3-3.

머리부분에 1~2條의 刻線을 새긴 것도 있다. 多面玉 1개는 紅瑪瑙製로 截頭五角錐를 2개 맞붙인 형태인데 12면체이고 중앙에 수직의 懸垂孔이 뚫려있는데 길이 0.8cm, 두께 0.5cm, 孔徑이 0.16cm이다. 또 평면이 원형이고 측면이 扁六角形의 珠算球 형태의 수정구슬도 1개가 출토되었는데 직경 1.70cm, 두께 1.20cm, 孔徑이 0.20cm이다. 이것도 한개분의 경식인지 또는 그이상의 것인지 는 확실치 않다.<sup>27)</sup>

池山洞 第45號古墳 第2石室 頸飾은 반투명의 청색계 유리수슬 140여개로 이루어지고 硬玉製 曲玉 1개도 있다. 유리구슬의 모양 크기 색깔은 일정치 않으나 小形은 불투명한 짙은 청색으로 鼓玉形이 많고 中形은 불투명, 반투명의 청색球形, 大形은 반투명 청색의 팔알형이 많다. 軟綠色의 납작한 曲玉의 頭部에는 얇은 刻線이 새겨져 있고 直徑은 0.5~1.0cm, 길이는 3.65cm이다.<sup>28)</sup>

梁山 夫婦塚 출토 부인의 頸部와 胸部의 위치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하단 중앙에 紅瑪瑙 曲玉이 있고 그 좌우에 水晶多面玉 다음은 紅瑪瑙山梔玉, 다음은 純金製小鼓形空玉, 紅瑪瑙山梔玉, 純金製小鼓形空玉, 다음은 紅瑪瑙管玉, 純金製小鼓玉, 홍마노管玉, 홍마노다면옥, 靑色琉璃多面玉, 홍마노다면옥의 순서로 銀線으로 連貫시켰는데 瑪瑙의 붉은 빛에 투명한 수정을, 금색에 푸른 유리를 조화있게 배열한 화려하고 완전한 頸飾으로서 가야의 목걸이중 원상의 형태를 유존시킨 유일한 것이다. 또하나의 頸飾은 金·銀 空球로 된 것으로 金製 空球는 9mm의 丸球인데 복부에 작은 말뚝드리개 모양의 달개가 4개, 十字文形으로 된 것이 32개가 발견되고 銀製 空球도 9mm의 空球로서 金製 작은 말뚝드리개 모양의 달개 3개가 붙어있는데 30개가 출토되었다. 이 일련의 頸飾은 寶冠과 馬鞍과의 중간에서 발견되었으므로 被葬者에

게 佩裝시킨 것은 아닌 듯하다. 이 金, 銀 空球는 耳飾에 부착된 一雙의 空球와 비슷하나 부인의 頸飾으로 보았다.<sup>29)</sup>

이상과 같이 당시에는 모든 裝身具중에서 목걸이류가 가장 많이 애용되고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曲玉의 전파와 함께 목걸이 공예가 일본으로 건너가 목걸이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圖 20) 曲玉垂飾목걸이  
慶州 天馬塚出土  
—(天馬塚)

### 3. 팔찌

팔찌[ ; 釧]의 역사도 오래이다. 先史時代부터 貝釧, 石釧, 銅釧등이 쓰였으며 일본에 있어서도 繩文時代와 彌生時代에 이미 팔찌가 裝身具로 사용되어 한국의 銅釧 양식을 갖춘 銅釧이 彌生時代에 이미 일본에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sup>30)</sup>

일본 古墳時代의 팔찌착용에는 千葉縣 經僧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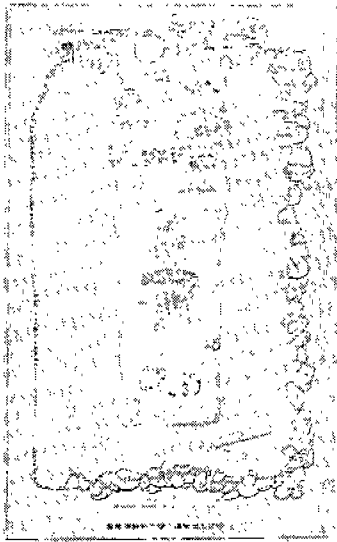
27) 啓明大學校博物館,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出版部, 1981, pp.57~58.

28) 金鐘徹, op. cit. p.230. 圖版 21.

29) 〈梁山夫婦塚及其遺物〉 p.49.

30)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439.

古墳 출토 埴輪 人物像(圖 1)에서 볼 수 있는 데 한 번에 여러개의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경주 제 98호분 북분 被葬者의 遺品出土狀態(圖 21)로 보아 양팔 위치에서 다수의 팔찌가 발견되었고 그밖의 경주 고분군에서도 같은 유례가 있어서 한일간에 팔찌착용 방법도 같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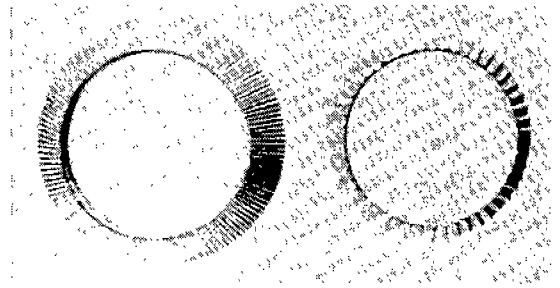
(圖 21) 慶州 第98 墳北墳遺物出土狀態  
—〈韓國의考古學〉

일본의 팔찌는 그 재료에 따라 貝釧, 石釧, 金屬釧, 玉釧등으로 나눌 수 있다. 貝釧은 彌生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고분시대 前期에 주로 쓰이였으며 일부는 후기까지 殘存하였다. 이 貝釧의 橫斷面은 후술할 石釧과 金屬釧의 母形으로 생각되고 있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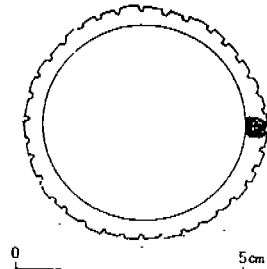
石釧은 碧玉製의 것이 대부분인데 표면은 밖으로 향해 경사지고 거기에 방사상의 조각이 있다. 유품으로는 京都市 大芝 출토품(圖 22)외에 다수가 있다. 金屬釧은 그 재질이 銅, 金, 銀이며 일본 고대에 있어서는 銅製는 많으나 金, 銀製(圖 23)는 稀少하다. 金屬釧들은 일본에 있어서는 고분시

대 전기 후반에 출현하여 고분시대 후기에 이르러 발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팔찌의 대부분이 금, 은의 제품이며 삼국시대 모든 지역에서 출토되며 4세기 후반경의 신라 고분에서 이미 출토되고 있다.<sup>32)</sup>

이들 貝釧, 石釧, 金屬釧들은 圖 22, 2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蛇腹文이 가해져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圖 22) 石釧  
日本 京都市大芝出土品  
—〈古代史發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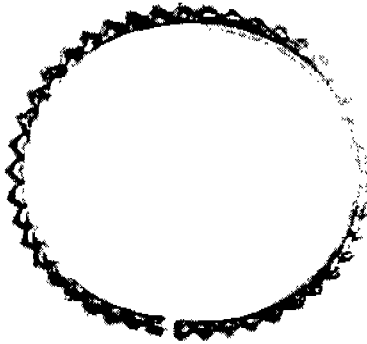
(圖 23) 銀製蛇腹文環式팔찌  
日本 奈良縣稻荷山古墳出土  
—〈比較韓國文化〉

이같은 蛇腹文環式팔찌의 유품은 高句麗 지역에서는 봉화리 제 1호분 출토 청동팔찌가 있는데 內徑이 63mm, 外徑이 75mm로서 그 단면은 3.5mm×6mm의 球形이다. 고리의 바깥 둘레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련의 길이 3mm인 튕날 모

31) 高橋健自, “埴輪及裝身具”, 〈考古學講座〉4, 東京: 國史講習會, p.216.

32) 金基雄, op. cit. pp.3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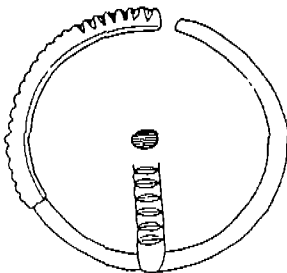
양의 돌기로 장식하였다.<sup>33)</sup>



(圖 24) 金製蛇腹文環式팔찌  
百濟 武寧王陵出土 -〈武寧王陵〉

百濟 지역에서도 武寧王陵 출토 金釧(圖 24)가 있는데 표면은 굽은 鋸齒形으로切入되었고 고리의 양끝은 약간 벌어져 있고 外徑은 6.7cm이다.<sup>34)</sup>

古新羅 지역에서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경주 金冠塚 출토 金釧(圖 25)은 橢圓中實의 것으로 環體의 外側은 蛇腹文이 刻目되어 있다.<sup>35)</sup> 壺杼塚 출토 金釧은 中空의 環體로서 直徑이 약 8cm이고 環의 外面은 蛇腹形으로 되어 있다.<sup>36)</sup> 이외에 금관총 출토 銀釧, 銀鈴塚출토 銀釧, 皇吾里 第33號墳 출토 銅釧등에서 環의 外面이 蛇腹文을 이루고 있음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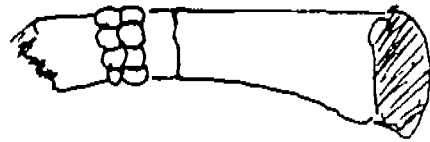


(圖 25) 金製蛇腹文環式팔찌  
古新羅 慶州 金冠塚出土  
-〈慶州金冠塚及其遺物〉

加耶지역에서도 양산 부부총 출토 銀釧 2개는 婦人의 左腕에 끼워져 있던 것인데 2개가 같은 형식으로 지름이 약 8cm이고 外周에는 蛇腹文의 刻目を 하였다.<sup>37)</sup> 昌寧 桂城洞고분 A地區 第1호분 출토 銀釧 2개중 1개는 銀에 鍍金을 한 것이고 1개는 純銀製이다. 도금한 것은 지름이 7.6cm, 두께가 0.4cm이고 순은제는 지름이 7.6 cm, 두께가 3cm이다. 두개가 다 環표면에는 중앙에 홈이 파인 작은 원형돌기를 양각한 형식의 蛇腹文을 가하고 있다.<sup>38)</sup>

玉釧은 일본 枳木縣 前橋출토 埴輪(圖 26)에 그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日本書紀에는 [手玉], 古事記에는 [玉釧]이라 되어 있어 손목에 끼는 玉으로 된 팔찌는 手玉, 또는 玉釧이라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玉釧의 발굴예는 고신라, 가야 고분군에서 볼 수 있다.



(圖 26) 玉釧  
日本 枳木縣前橋出土  
-〈考古學講座〉4

古新羅고분에서는 먼저 皇吾里 第 54호분 甲塚에서 瑪瑙製管玉에 琥珀製小玉을 連鎖한 것이 2개(圖 27)가 출토되었고 皇南里 第 109호분 제4곽에서도 濃青色 琉璃製小玉32개를 連鎖하고 小曲玉 1개를 달은 玉釧이 발견되었다. 경주 금령총출토품중 하나는 琉璃玉을 연결한 것이고(圖 28), 또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색채의 南京玉을 두줄로 연

33) <봉화리 무덤떼의 조사보고>, 고고민속 제1호, 고고학연구소, 1967, p.38.

34) 韓炳三(編), op. cit., p.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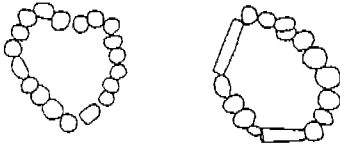
35)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929, pp.111~12.

36) 金載元, op. cit.,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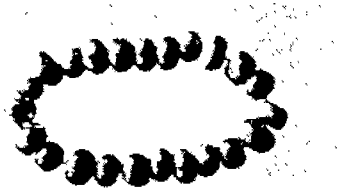
37) <梁山夫婦塚及其遺物>, p.52.

38) 尹世英, op. cit. pp.157~58.

걸하고 그 중간에 硬玉製의 曲玉을 하나 집어 넣는 독특한 형태이다. 장식의 中核을 이루는 曲玉은 백색을 띤 불투명색이며 둘레의 小玉들은 琉璃色외에 朱, 黃, 水色등이 교차 사용되고 있다.<sup>39)</sup>



(圖 27) 玉釧  
古新羅 皇吳里製54 墳甲塚出土  
-〈古墳出土副葬品研究〉



(圖 28) 玉釧  
慶州 金鈴塚出土  
-〈慶州金鈴塚飾履塚〉

경주 제 98호분 남분 출토품은 黃, 黑色의 小玉과 曲玉을 교차시켜 배치하여 그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加耶지역에서는 양산 부부총에서 출토된 2條의 玉釧중 하나는 지름이 약8mm의 小瑪瑙玉 55개를 연관한 것으로 부인의 右腕에 끼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小瑪瑙玉23개와 지름이 약 6mm의 琉璃小玉 23개와 蜜柑玉(銀地에 도금을 한 지름이 약 9mm)으로 구성된 것인데 부인의 左腕에 끼어져 있었다.<sup>40)</sup>

#### 4. 반 지

일본에는 이미 彌生時代에 한국계 반지의 양을 보이는 청동제반지가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단한 형태의 가는줄로 고리를 이룬 반지이다. 彌生時代이후 이 풍습은 한때 단절되었다가 한국, 대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분시대 후기에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고분시대에도 일본인들의 반지 착용은 그리 성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인들의 기호에 안맞았는지 그 출토예가 많지 않다.<sup>41)</sup>

일본의 반지중에서 山口市美濃ヶ 住居地에서 출토된 예는 銅製薄板을 圓形으로 꾸부린 것인데 고구려 벽화고분 약수리벽화고분 출토 금, 은제와 그 제작수법이 동일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양식은 有文菱形반지이다.

일본 福岡縣 沖ノ島출토 금반지(圖 29)는 중앙이 菱形으로 넓어지고 그 안에는 四花文을 시문하여 화려한 것으로 반지 둘레는 珠文狀의 細金이 붙어 있다.<sup>42)</sup>



(圖 29) 金製有文菱形반지  
日本 福岡縣沖ノ島出土  
-〈世界考古學大系〉3 日本

이같은 有文菱形반지의 양식은 우리나라 고신라, 가야동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고구려 지역에도

39)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pp.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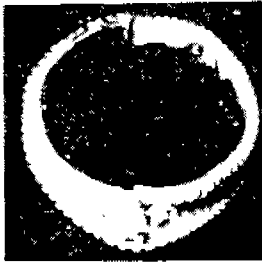
40) 〈梁山夫婦塚と其遺物〉, pp.52~53.

41) 樋口清之, 永峯光一, op. cit. p.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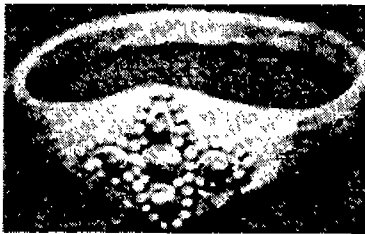
42) 〈原色日本の美術〉1, 原始美術, 東京: 小學館, 1970, p.139.

서는 菱形부위에 장식이 없는 素文菱形반지가 있는데 평남 강서군 보림리 소동 제 12호분 출토 은반지와 안학궁지 제2호분 출토 청동반지가 있다.

古新羅 慶州 金冠塚出土 금반지 중 9개의 형태는 반지 上面부위가 약간 넓어지며 稜角으로 되었고 이 부위에 鋸齒文을 刻目한 細帶를 環의 중앙에 加飾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sup>43)</sup> 慶州 路西洞 출토 금반지(圖 30)는 테두리 가장자리에 鑲金 장식으로 둘러고 전면은 菱形으로 폭을 넓혔으며 鑲金細工으로 四瓣花形座板을 배치하였다.<sup>44)</sup> 金鈴塚出土 금반지는 능형으로 된 전면에 다시 능형의 鑲金장식을 배치하고 그 안에 七寶琉璃玉을 嵌入하였다.<sup>45)</sup> 皇南洞 第98號墳 南墳 出土 금반지(圖 31)는 菱形부분에 鑲金細工으로 四瓣花形座를 시문하고 그 안에 중앙과 花瓣에 青色琉璃珠를 嵌入하였다.<sup>46)</sup>



(圖 30) 金製有文菱形반지  
慶州 路西洞古墳出土  
-〈韓國美術全集〉2



(圖 31) 金製有文菱形반지  
慶州 第98號墳 南墳出土  
-〈新羅双墳〉

加耶 昌寧 校洞 7號墳 出土 은반지는 前述한 금반지와 달리 용접되어 있었으나 형태는 동일한 菱形을 이루고 있으며 반지의 양쪽 테두리에 날카로운 刃器로 두드려 만든 稜角이 돌출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47)</sup>

이상과 같은 有文菱形반지들은 菱形부위의 裝飾技法이 약간씩 다르나 주로 圖29의 일본 출토 반지와 동일한 樣式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圖 31의 양식은 한단계 더 나아가 鑲金, 嵌珠技法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반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앞서는 선진지역임을 알 수 있다.

### Ⅲ. 結 論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분시대를 중심으로 裝身具의 착용실태와 그 구성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裝身具중에서 특히 垂飾付耳飾은 일본에서는 5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6세기 전반에서 7세기에 걸쳐 성행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4세기 전반경의 加耶고분에서 출토되었고 그양식도 다양하다. 목걸이는 曲玉製垂下式목걸이 樣式이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에서도 보이고 있으며 그양식도 始原形을 하고 있다. 팔찌도 한국의 銅釧 양식을 갖춘 銅釧이 彌生時代에 이미 일본에 건너갔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의 金屬釧들은 고분시대 전기후반에 출현하여 고분시대후기에 이르러 발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세기후반경의 古新羅고분에서 이미 출토되고 있다. 반지도 이미 彌生時代에 한국계 양식을 보이는 청동제 반지가 출토되고 있으며 이 풍습은 잠시 단절되었다가 한국고대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분시대 후기에 다시 시작되

43) 前掲,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pp.113~14.

44) 韓炳三(編), op. cit. p.140.

45)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p.93.

46) 文化財管理局, [慶州皇南洞第98號墳(南墳)發掘調査略報告], p.23.

47)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 통천문화사, 1992. p.139.

었다고 보고있다.

이와같이 古代의 裝身具는 우리나라가 日本에 앞서는 선진지역으로 대부분의 일본 裝身具류는 우리의 것들이 거의 그대로 傳授된 것으로 보이며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걸이의 공통점은 多條式耳飾에서는 多條式양식과 치자실형 垂飾과 單條式耳飾에서는 心葉形垂飾 특히 複葉式的 양식이다.

둘째, 목걸이의 공통점은 각종의 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한 玉類연결 목걸이, 특히 중앙에 曲玉을 垂下시키는 독특한 양식이다.

셋째, 팔찌의 공통점은 蛇腹文環式팔찌와 玉팔찌 樣式이다.

넷째, 반지의 공통점은 有文菱形반지의 양식이다.

이상의 比較考察로 보아 일본 고대의 대부분의 裝身具는 한국 고대의 裝身具들의 舶來品이지만 혹시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그 공예 기술은 우리나라로부터 전수된 것으로 생각되어 일본 고대 裝身具의 源流는 우리나라 고대 裝身具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啓明大學校博物館. 〈高靈 池山洞古墳群〉. 大邱 : 啓明大出版部, 1981.
- 高橋健自. “埴輪及裝身具”, 〈考古學講座〉4, 東京 : 國史講習會.
- 〈古代史發掘〉2. 繩文土器と貝塚 東京 : 講談社, 1973
- 〈古代史發掘〉6. “古墳と國家の成立ち”. 東京 : 講談社, 1975.
- 〈古代史發掘〉7. “埴輪と石の造形”. 東京 : 講談社, 1975.
- 國立中央博物館. 〈皇吳里第4. 5號墳發掘調查報告〉. 1964.
- \_\_\_\_\_ . 〈新羅双墳〉, 慶州98號墳, 1975.
- 국립진주박물관(편). 〈국립진주박물관〉. 서울 : 통원문화사, 1992.
- 金文子. “韓日古代服飾關係研究”. 梨大碩士學位論文, 1980.
- \_\_\_\_\_ . 〈韓國服飾文化的 源流〉. 서울 : 民族文化社, 1994.
- 金基雄. “裝身具”, 〈日本文化的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東北亞細亞研究會(編), 서울 : 三省出版社, 1981.
- 金載元. 〈壺杆塚과 銀鈴塚〉. 서울 : 을류문화사 1946.
- 金廷鶴(編). 〈韓國의 考古學〉. 東京 : 河出書房新社, 1972.
- 金鍾徹. 〈高靈 池山洞 第4. 5墳發掘報告書〉. 高靈郡, 1979.
- 〈대동강유역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제1집, 과학원출판사, 1958.
-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제9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 〈大正十一年朝鮮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29.
- 〈大正十二年朝鮮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23.
- 〈大正十三年朝鮮古蹟調查報告〉. 梅原末治, 朝鮮總督府, 1924.
- 東亞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第1號古墳發掘調查報告〉. 부산 : 동아대출판부, 1971.
- 梅原末治, 藤田亮策. 〈朝鮮古文化總鑑〉. 第4券, 東京 : 創元社, 1966.
- 文化財管理局. 〈慶州皇南洞第98號古墳發掘略報告〉, 1974.
- \_\_\_\_\_ . 〈天馬塚〉, 1974.
- \_\_\_\_\_ . 〈武寧王陵〉, 1974.
- \_\_\_\_\_ . 〈慶州皇南洞第98號墳(南墳)發掘調查略報告〉, 1976.
- \_\_\_\_\_ . 〈北韓文化遺蹟發掘概報〉, 北韓文化財調查書第3冊, 1991.
- 〈봉화리 무덤떼의 조사보고〉. 고고민속 제1호, 고고학연구소, 1967.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 閔斗基(編著). 〈日本の歴史〉. 서울: 知識産業社, 1977.
- 〈世界考古學大系〉3. 日本, 東京: 平凡社. 1959.
- 小林行雄, 〈埴輪〉. 陶磁大系 3, 東京: 平凡社, 1974.
- 〈昭和六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31.
- 〈昭和八年度朝鮮古蹟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33.
- 〈新版考古學講座〉5. 原史文化下, 東京: 雄山閣, 1970.
- 〈압록강, 독로강류역고구려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제13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總督府, 本文, 圖版, 1927.
- 嶺南大學校博物館. 〈皇南洞發掘調查概說〉. 1975.
- 〈原色日本の美術〉1. 原始美術, 東京: 小學館, 1970.
-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編). 〈韓國의 裝身具〉, 韓國博物館協會, 1991.
- 樋口清之. 永峯光一, “裝身具”, 〈新版考古學講座〉5, 原史文化下, 東京: 雄山閣, 1974
- 韓炳三(編). 〈韓國美術全集〉2, 古墳美術. 서울: 同和出版公社, 1975.
- 穴澤和光. 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東京: 日本考古學會, 1975.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 of Korean and Japanese Ornaments in ancient times

The object is to study the influence Korean ornaments had on the Japanese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In ornaments (Earrings, Necklaces, Bracelets, Rings) also we can find commonness between Korean and Japan. CHIZASIL(a gardenia seed) and heart shaped of Earrings, the use of gems in Necklaces, engravings of abdomen on Bracelets and rhomb-shaped Rings, all these are comm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same time, we can see that our country was superior to Japan ornaments.